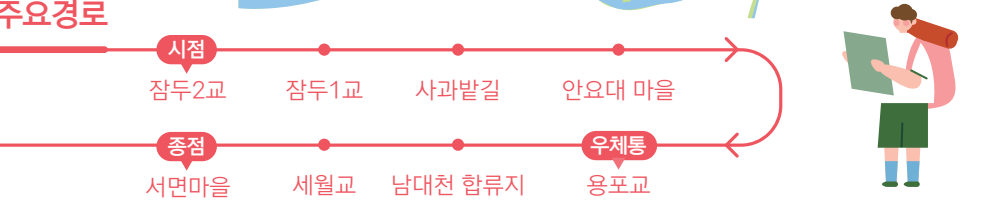


무주 제1길 **한적하고 평화로운 사과꽃 마을길**  
**예향천리 금강변마실길 2코스**



**누에의 머리와 같이 생긴 마을**  
 건너 보면 마치 누에의 머리와 같이 생겨서 이름 붙은 평화로운 '잠두마을'을 바라볼 수 있다. 고요히 흐르는 물과 바위로 벽을 두른 산의 조화는 말을 잊지 못할 만큼의 경관을 자랑한다. '잠두 1교'로 걸음을 재촉한다. 2km 남짓의 이 강변 산책로가 끝날 무렵, 도로를 건너 '사과밭 길'로 향한다. 때를 잘 맞추어 흐드러진 꽃과 함께 얽게 스민 사과꽃 향기에 취해보자.

**시원스럽게 이어진 산과 강**  
 이어서 구불구불 돌아가는 금강이 마치 허리띠와 같이 생겨서 이름 붙은 '안요대마을'로 통하는 입구에 멋진 정자가 두 개 있다. 아래로는 푸른 물, 왼쪽에는 험한 바위, 절벽은 꼼꼼히 쌓은 돌 축대가 든든히 받쳐주고 있다. 그렇게 만나는 '용포교'는 오랜 시간 그 자리에서 금산과 무주, 충청남도과 전라북도를 잇고 있었다.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온 시원스럽게 이어진 산과 강이 여전하여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상쾌하다.



**추천 한마디**  
 꽃 피는 봄에 더욱 아름다운 길이다. 1코스와 이어서 하루동안 걷는 트레킹 코스로 삼아도 좋다.

컨셉 강변길 길이 10km 시간 3시간 난위도 쉬움 낙석주의

무주 제2길 **꽃색과 물빛이 강물 따라 어우러지는**  
**예향천리 금강변마실길 1코스**



**굽이굽이 돌아 흐르는 금강, 환상의 구간**  
 금강변마실길 1코스는 금강의 최상류 지역에 위치한 '도소마을'을 기점으로 '울소마을'에 이르는 길이다. '도소'는 '섬곳'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풀이했을 때 과거 최상류의 거센 물살에 섬처럼 고립되어 붙여졌다고 한다. 지금은 굽이굽이 돌아 흐르는 금강, 한적하고 아름다운 '도소마을'은 이 길의 시작으로 꽤 잘 어울린다.

**맑은 강물에서 즐기는 물놀이는 더위를 잊기에 충분하다.**  
 몇 군데의 둑뎡을 지나 강 반대쪽 둔치인 '세월교'에 올라선다. 여울물의 기운찬 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어 좋다. 맞은편 강 건너에는 푸른 솔 몇 그루를 그림처럼 머리에 인 '대문 바위'가 눈에 띈다. 다시 1km 정도 길을 걸어 겨우 자동차 한 대가 지날 수 있는 '덤덜교'를 만난다. 이후 '부남면사무소'에 도착하여 안내판을 따라 '도소마을' 뒤 언덕을 오르면 거대한 두 그루 동구나무를 만날 수 있다. 부남면 전체와 푸른 금강물을 시원히 내려다보며 걷는 길은 호쾌하다. 곧 사과밭 옆을 지나는데, 사과가 익는 계절에는 그 자체로 또한 장관이 펼쳐진다.



**추천 한마디**  
 봄꽃이 아름다운 시기에 걸으면 좋다. 여름에도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으니 휴가지로도 좋다.

컨셉 강변길 길이 7km 시간 3시간 난위도 쉬움 낙석주의

무주 제3길 **9천번을 돌아 내려오는 구비**  
**구천동 어사길**



**속세를 잊고픈 33절경**  
 '구천동'은 덕유산 북쪽에서 발원한 물이 학소대, 추월담, 수심대, 수경대, 구천폭포 등 33곳의 절경을 만들어내며 그 구비는 무려 9,000번을 돌아내려 온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덕유산국립공원 삼공주차장'을 출발하여 1.5km 구간, 구천동 어사길'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널찍한 바위가 인상적인 16경 '인월담'부터 차례대로 33곳 경치의 일부를 만나 볼 수 있다. 선녀가 비파를 뜯으면서 놀았다는 '비파담'과 월영령과 백련사에서 내려온 물이 합류하는 곳에 위치한 '구월담' 등 각각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풍경 속을 한동안 걷다 보면 걷는 곳곳마다 연신 좋다는 감탄사가 터져 나온다. 잠시 속세를 잊어버릴 법한 절경이다.

단풍이 계곡을 타고 흐르는 풍경에 모두가 넋을 잃는다. 이어서 만나는 '안심대'에서 백련사까지는 다소 가파른 오르막길이다. 9,000번의 구비를 다 세지 못하고 33경의 경치를 모두 눈에 담아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여정의 반을 지르는 백련사'를 둘러본 후 다시 돌아간다. 올 때와는 다르게 다리를 건너 반대편으로 넘어가기도 하면서 돌아오는 길이 새로운 길을 걷는 듯 다시 다른 풍경에 압도된다.



**추천 한마디**  
 걷는 곳곳마다 절경이고 연신 좋다는 감탄사가 터져 나온다.

컨셉 산들길 길이 13km 시간 4시간 난위도 보통

## 전라북도의 명품 걷기코스



### 천리길 탄생!

### 이제 전라북도의 속 명품걷기 무주를 걸어보세요.

다양한 전북의 명품 길 중에서도 특히 아름다운 풍경과 역사적 가치, 이야기가 있는 길을 엄선하여 14개 시, 군마다 3~4개의 명품 걷기여행 길을 선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정된 길들을 <전북 천리길>로 명명하였습니다.

각 길은 해안길, 강변길, 산들길, 호수길로 구분돼 있으며 짧게는 두, 세 시간에서 길게는 대여섯 시간을 걸으며 전라북도가 가진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전라북도의 속 무주를 걸어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넘어선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어느 길이라도 우리가 바쁜 일상에서 쉽게 보지 못했던 풍경과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했던 쉼과 힐링의 시간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전북 천리길 중 '무주'에 첫발을 내디딘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 무주 마실길 대중교통 안내

### 무주 제1길

#### 예향천리 금강변 마실길 2코스

무주공용버스터미널 → 시점  
무주공용버스터미널에서 무진장버스 부남행 (가당, 굴암리, 반소) 탑승 → 도소정류장 하차

종점 → 무주공용버스터미널  
울소마을회관 방향으로 도보 4분(252m) → 울소정류장에서 무진장버스 부남행 (밤소, 굴암리, 가당) 탑승 → 무주공용버스터미널 하차

### 무주 제2길

#### 예향천리 금강변 마실길 1코스

무주공용버스터미널 → 시점  
무주공용버스터미널에서 무진장버스 부남행 (가당) 탑승 → 굴암사거리 정류장 (잠두2교 하차 의사 표시) 하차 → 잠두2교 방향으로 도보 13분 (888m)

종점 → 무주공용버스터미널  
무진장버스 무주행(서면) 탑승 → 무주공영버스터미널 하차

### 무주 제3길

#### 구천동 어사길

무주공용버스터미널 → 시점  
무주공용버스터미널에서 무진장버스 구천동 행 탑승 → 구천동버스 정류장 하차

종점 → 무주공용버스터미널  
구천동버스정류장에서 무진장버스 무주행(미천, 상오정, 가당) 탑승 → 무주공영 버스터미널 하차

### 스탬프 투어 안내

<p><b>1</b> 천리길 수첩 수령</p> <p>무주군 관광안내소 (무주읍)에서 천리길 수첩 수령 (무료)</p>	<p><b>2</b> 걸으며 스탬프 수집</p> <p>무주 마실길을 걸으며 각 코스 스탬프 우체통에서 스탬프 수집 (무주군 3곳)</p>	<p><b>3</b> 천리길 수첩 제출</p> <p>스탬프 모두 찍은 후 무주군 관광안내소 (무주읍)에서 천리길 수첩 제출</p>	<p><b>4</b> 완주 후 기념품 받기</p> <p>천리길 수첩 인증후 인증서와 뱃지, 기념품 받기</p>
---	--	--	---

### 무주마실길 안내

무주관광안내소(무주읍)  
전북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344  
☎ 063-320-2114

무주관광안내소(무주IC)  
☎ 063-320-2571

무주관광안내소(구천동)  
☎ 063-320-2905

무주군청 환경과  
☎ 063-320-2334

반딧불이 노니는

아름다운 강이 맞닿아 있는

# 무주마실길

**강변길** 예향천리 금강변마실길 1, 2 코스

**산들길** 구천동 어사길

